

공동체 소식



그리스도 왕 대축일

아버지, 모든 이를 다스리는 유일한 임금이며 목자로 성자를 보내시어,
비탄의 역사 속에서도 사랑의 나라를 세우셨으니, 저희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시어,
성자께서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물리치시고, 마침내 아버지께 그 나라를 넘겨 드리시는 날,
아버지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심을 저희가 고백하게 하소서.



11월 기도지향

- 류기범 요셉, 신혜경 마리아 가정
- 문석찬 요셉, 백문주 엘리사벳 가정

☞ 교황님 기도 지향 : 외로움으로 고통 받는 모든 이가 하느님
께서 늘 그들 곁에 계심을 깨닫고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위령 성월

교회는 해마다 11월 2일에 기념하는 ‘위령의 날’과 관련하여
11월 한 달을 ‘위령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위령 성월은 세
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이 위령 성월에 신자들은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지들의 영혼
은 물론 죽은 모든 이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는 이
시기에 특히 연옥에서 단련 받는 영혼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대림시기

다음 주일부터는 전례주년의 시작이며,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
하는 대림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구세주이신 하느님의 아드님
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회개와 속죄로 준비
하는 기간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
겨봅니다.

신심미사

- 예수성심미사 : 12/5(금) 오전 10시, 미사 후 십자가의 길
- 성모성심미사 : 12/6(토) 오전 10시, 목주의 기도 후 미사

구역회의

- 일시 : 11/23(일) 오후 2시
- 장소 : 회관
- ☞ 성탄 관공 및 구역미사에 대한 토의가 있겠습니다.

기타

- 이번 주일 중심미사 후, 성당 대청소가 있습니다.
- Thanksgiving Day를 맞아 만찬을 준비해 주신 구역회와 사
이드 디쉬로 참여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77	210	165/180	78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정수한 베드로	정예찬 미카엘
	정병훈 보니파시오	문호진 안토니오
차주	차호섭 요셉	차서은 세라피나
	안광민 제임스	차민서 임마누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문석찬 요셉
금주	김주연 세실리아	은유나 요안나	선하서 미카엘라
차주	최은미 아네스		

애찬 봉사자

금주	Thanksgiving 다 함께
차주	손정화, 유경애, 한춘희

헌금 봉사자

금주	김태중 예레미아, 문석찬 요셉
차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요한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11/16	75명	304불	700불
김대성, 김현동, 김원철(총 3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홍순의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전례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
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찬미합니다. 그분의 왕권은 정의와 자
비가 넘치는 하느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이미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가 고백하듯이 그리스도의 왕권
은 죽음에 대한 결정적 승리로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이 우리
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사랑의 실천으로 그리스도의 왕직에
참여하도록 결심합니다.

그림 묵상

우리의 왕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 전례에서 영광스러운 임금님이 가장
비천하고 궁핍한 사람들과 하나 되신다는 아주 특별하고 감동적인 내
용을 듣습니다. 그분은 약한 이들 위에 군림하려는 이세상의 통치자들
과는 다르신 분, 당신 백성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으신 우리의 유
일하고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분의 것, 그분 왕국의 시
민입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서 : 에제34,11-12.15-17 < 너희 나의 양 떼야, 나 이제 양과 양 사이의 시비를 가리겠다. >

화 답 송 :



주 님 게 서 는 나 의 목 - 자 아 쉬 울 것 없 노 라

- 주님께서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파아란 풀밭에 이 몸 누여 주시고
고이 쉬라 물터로 나를 끌어 주시니 내 영혼 싱싱하게 생기 돈아라. ◎
- 주님께서 당신 이름 그 영광을 위하여 곧은 살 지름길로 날 인도하셨어라.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간다 해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나이다. ◎
- 당신의 막대와 그 지팡이에 시름은 가시어서 든든하외다 제 원수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향기름 이 머리에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 하외다. ◎
- 주님께서 당신 이름 그 영광을 위하여 곧은 살 지름길로 날 인도하셨어라.
한평생 은총과 복이 이 몸을 따르리니 오래오래 주님 궁에서 사오리다. ◎

제 2 독서 : 1코린15,20-26.28

< 그리스도께서는 나라를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 드리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여라! ◎

복 음 : 마태25,31-46 <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아 모든 민족들을 가를 것이다. >

세 마

“최후 심판”



오늘은 연중시기의 마지막 주일이자 전례력으로 한 해가 끝나는 주간이다. 다음주부터 대림시기인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 교회는 연중시기의 마지막 주일을 그리스도왕대축일로 지낸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왕’이라고 칭한 적이 없으시지만 우리의 믿음 안에서 그분은 왕이시다.

오늘 복음 말씀은 일명 ‘최후의 심판’이라고 불리우는 마태오복음의 말씀이다. 그리스도교에서 순교하지 않고 성인이 된 최초의 인물은 성마르티노(316-397, 헝가리)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어느 날 성문 앞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걸인에게 자기 겹옷을 벗어 주었다. 그 날 밤 누더기 겹옷을 입으신 그리스도께서 마르티노에게 나타나셔서 마태오복음 25,40을 인용하셨다.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사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에 얼마나 자주 다른 동기가 스며드는지 알게 된다. 다른 동기들이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마음, 자신을 훌륭한 사람으로 내세우고 싶은 마음, 자신의 결점을 봉사를 통해 메우려는 마음 등등...

오늘 복음말씀은 심판의 이미지가 강해서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심판이란 ‘단죄’가 아니다. 그것은 순수한 마음가짐으로 되돌아가는 일(연옥),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없어지고 본연의 내 모습이 되는 것(하늘나라)이라고 할 수 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면서 이 위대한 일(도와주는것)을 행하게 된 것이 분명하다. 지옥이란 거창한 것도, 극한적인 것도, 불이 활활 타거나 사람을 질식시키는 그 무엇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으로만 가득 차 있는 인간이 지옥이다.



살면서 제 힘으로 남김 업적이나 자기 능력으로 이룩한 실적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 하는 인간 자신이 바로 지옥이 된다. 지옥은 남을 바라볼 줄 모르고 영원히 자기 자신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방식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의미는 1.죽음에 대한 훈련(깨어기다림)에 있으며, 2. 덕행을 쌓아 인간 존재를 성취하는 데 있다.(삶과 체험의 중심이 자기 자신보다 우선 다른 사람을 향해 있는 사람들..) 3. 죄에 대한 저항에 있다.(명백한 대죄보단 일상의 소죄..즉 실존적 나약함으로 인해 전적으로 투신하거나, 자신의 내적.인격적 핵심이 드러나고, 그의 운명을 담고 있는 근원적인 부분이 표출되는데도 우리는 망설이지 않고 그것을 소죄 개념에 편입시키기 일쭤다.)

안셀름 그렌 신부님은 심판관이 왕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이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예수님께 의하면 나는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왕 같은 사람으로 보고 대우함으로써 도와 주는 것이다.

도움이란 것은 다른 사람을 도움 받는 자로 격하시키는 일이어서는 안되고, 그가 왕 혹은 여왕으로서의 자신의 품위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를 일으켜 세우는 일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심판 말씀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지속적인 도전이다.

“사람들이 길에서 한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온 몸에서 구더기가 끓었습니다. 그 몸을 씻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만, 저는 예수님의 몸을 씻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마더 데레사

- 인터넷 블로그 ‘어느 시골 신부’ -

주춧돌

제 2 편 은총의 생인 성사와 기도



제2장 견진성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그들 가운데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께서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때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사도 8,14-17).

【주석】

안수하자 : 안수는 사도행전에서 자주 언급된다(주석 성경, 신약, 470). 사도행전에 의하면, 공동체의 직무를 맡길 때(사도 6,6), 세례에 이어 성령을 베풀 때, 병자를 고칠 때(9,12), 그리고 사명수행을 하라고 파견할 때에 사도들은 안수를 한다(13,3).

성령을 받았다 :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리신 성령께서 이제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내리신다(주석 성경, 신약, 477).

【설명】

견진성사(堅振聖事)란 무엇인가?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강림을 체험한 제자들은 두려움을 떨쳐 버리고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견진성사는 성령을 받아 신앙이 견고해져 하느님을 증거하게 하는 성사이다. 신자는 견진성사를 통하여 신앙의 증인이 된다. 견진성사를 받은 신자는 대부 대모가 될 수 있고, 말과 행동으로 굳세게 하느님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한다.

【교회의 가르침】

▶ 세례성사와 마찬가지로 견진성사도 그리스도인의 영혼에 영적인 표시, 곧 지워지지 않는 인호를 새겨 준다. 그러므로 견진성사는 일생에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다(가톨릭교회교리서, 1317항).

- ▶ 견진성사는 세례성사의 은총을 증가시키고 심화시킨다. 견진성사는,
 -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뿌리를 내려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마 8,15)라고 부르게 한다.
 -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욱 굳게 결합시킨다.
 - 우리 안에 성령의 선물을 증대시킨다.
 - 우리와 교회의 결합을 더욱 완전하게 한다.
 - 성령의 특별한 힘을 받아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전파하고 옹호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용감히 고백하고,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해 준다(가톨릭교회교리서, 1303항).

- 『신앙생활 보감』,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3 -